TV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50 특집 다큐멘터리 빈병으로 바꾸는 세상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0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사랑했나봐〉	05 KBC 뉴스지금 30 모닝와이드 3부
8	10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40 김부장의 경제특급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너라서 좋아〉
9	40 신문으로 보는 세상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사랑아 사랑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40 논설실장의 세상보기 황호택의 눈을 떠요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재)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50 뉴스 현장	00 러브 인 아시아(재) 55 바른말 고운말	10 KBS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재) 50 특집 리얼체험 프로젝트 인간의 조건(재)	00 일일연속극 〈오자룡이 간다〉(재)	00 SBS생활경제 40 KBC생활뉴스
12		00 KBS 뉴스12		00 MBC 정오뉴스 20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 1부	00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재)
1	20 신년특집 국내최초 김정은 1년 북한 내부공개(재)	00 KBS걸작선 〈브레인〉(재)	00 비타민(재)	20 MBC 특별생방송 〈내일을 위한 실천 에너지 SOS〉	30 벤자민의 맛있는 여행
2	30 김광현의 탕탕평평	00 KBS뉴스 10 글로벌 성공시대(재)	10 다큐멘터리 3일(재)	40 공감 특별한세상 스페셜	00 SBS뉴스 10 건강클리닉(재)
3	40 이언경의 직언직설	00 아름다운 사람들(재) 10 신년기획 수요기획(재)	0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0 KBS 뉴스타임 35 후토스(재)	00 MBC 3시 경제뉴스 10 뚝딱 아저씨 베스트	10 인문학열전
4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필 통-광주〉	00 오후의 초록가방(재) 30 TV 유치원	00 엄마는 마법사 스페셜 30 아웅다웅 동화나라	00 매일엄마2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상상친구 꾸메푸메(재) 30 시장의 맛(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30 생방송 투데이 1~2부
6	00 뉴스와이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20 생방송 전국시대	
7	2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45 일일시트콤 〈패밀리〉	15 일일연속극 〈오자룡이 간다〉 55 MBC 뉴스데스크	20 일일드라마 〈가족의 탄생〉
8	30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재)	25 일일연속극 〈힘내요 미스터김〉	2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 50 의뢰인 K	50 블만제로 UP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40 날씨와 생활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40 뉴스A	00 KBS 뉴스 9		55 수목미니시리즈 〈보고싶다〉	55 SBS 대기획 〈대풍수〉
10		00 신년특집 백두대간을 날다 50 아름다운 사람들	00 수목드라마 〈전우치〉		
11	10 웰컴 투 시월드 X파일	00 신년특집 〈100대 카메라로 본 대한민국 24시〉	20 해피 투게더	15 황금어장 〈무릎팍도사〉	15 자기야
12	20 박종진의 쾌도난마(재) ①:30 판관 포청천 2012	50 KBS 뉴스 ①:00 콘서트 필2(재) 50 KBS 걸작다큐(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05 세상의 모든 다큐	45 MBC 뉴스24 ①:05 MBC프라임	35 나이트라인 ①:00 KBC특선다큐시리즈

EBS

06:00 극한 직업
06:30 미래 직업, 뜨는 직업
07:00 몬스터 수학나라
07:30 꼬마 펭귄 핑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딩동댕 유치원 1~3
08:30 뽀롱 뽀롱 뽀로로
08:45 춤추는 곰 콩야
09:00 방귀대장 뿡뿡이
09:10 치로의 클래식 동요
09:15 깨미
09:30 달려라 카카
09:45 클로이의 요술옷장
10:00 부모 〈아이들의 응급상황, 이럴 땐 어떡하나요?〉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정신우의 복이 가득한 밥상〉
11:20 세계테마기행 〈공존의 강 도나우 4부 -도나우의 숨은 보석을 만나다〉
12:00 EBS 정오 뉴스
12:10 TV 입학사정관
13:00 초등 2년 겨울방학생활
13:20 초등 4년 겨울방학생활
13:40 초등 6년 겨울방학생활
14:05 함께하는 한국어
14:35 순 우리말 사전 1~2
14:45 영어유치원 요 가바가바
15:10 고양이 파피
15:35 임시필러
16:00 딩동댕 유치원1~3(재)
16:30 클로이의 요술옷장(재)
16:45 춤추는 곰, 콩야(재)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0 치로의 클래식 동요(재)
17:15 꼬마버스 타요(재)
17:30 달려라 카카(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4
18:50 곤
19:05 머털도사
19:35 EBS 가족건강 프로젝트
20:25 지식채널e
20:30 EBS 뉴스
20:50 세계테마기행 〈7번국도 4부-푸른 꿈, 풍요의 영덕〉
21:50 EBS 다큐 프리임 〈말라위 물 위의 전쟁 2부 -머나먼 공존의 길〉
22:50 극한 직업
23:20 다큐10+ 〈문명의 탄생과 몰락 -1편 최초의 도시, 최초의 국가〉
24:05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

EBS플러스1

00:00 2013 수능개념 〈은주쌤의 필(Feel)통(通)수학 I〉
00:50 수능 길잡이 〈문학〉
01:40 고1 예비과정 〈최은진의 수학〉
02:30 수능길잡이 〈김규호의 기하와 벡터〉
03:20 〃 〈김경한의 미적분과 통계기본〉
04:10 〃 〈곽정원의 수학II〉
05:00 〃 〈이한주의 수학II〉
05:50 〃 〈김명수의 적분과 통계〉
06:40 고1 예비과정 〈국어〉
07:30 2013 수능길잡이 〈독서〉
08:20 2013 수능개념 〈장인수의 물리II〉
09:10 〃 〈이희나의 화학II〉
10:00 〃 〈송점석의 생명과학II〉
10:50 〃 〈송원희의 지구과학II〉
11:40 2013 수능 길잡이 〈영어독해 구문 편〉
12:30 박봄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13:00 2013 고1 예비과정 〈오렌지의 영어〉
14:00 2013스능개념 〈포기를 모르는 세식쌤의 수학II〉
15:00 2013 수능길잡이 〈영어독해 유형 편〉
16:00 2013 수능개념 〈회명샘의 대단한 세계사〉
17:00 〃 〈이남승의 한국지리 1등급 프로포즈〉
18:00 2014 대비 수능 스타트 〈정현경의 수학II〉
19:00 〃 〈박숙녀의 적분과 통계〉
20:00 2013 수능개념 〈이아영의 마법노트〉

EBS플러스2

07:00 한국어능력시험대비 강좌 〈중급〉
07:30 EBSe 생활영어
08:00 9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08:30 독학사 교육 강좌
09:10 중1 예비과정 〈사회〉
09:50 〃 〈과학〉
10:30 중2 예비과정 〈역사(상)〉
11:10 〃 〈과학〉
11:50 중3 예비과정 〈사회〉
12:30 〃 〈과학〉
13:10 〃 〈수학〉
13:50 뻔뻔한 영어
14:30 한글이 아호
14:50 뽕뽕이랑 냠냠
15:10 발명이 팡팡!
15:20 한자교육 드라마 〈어린이 손자병법〉
15:50 사이언스 드라마 〈미래를 보는 소년〉
16:20 초등 2년 EBS 겨울방학생활
16:40 초등 4년 EBS 겨울방학생활
17:00 초등 6년 EBS 겨울방학생활
17:20 초등개념 잡기〈사회〉
18:00 동물대탐험 〈구리구리 댕댕〉
18:40 어린이 역사드라마 〈점프〉
19:20 숲 속 친구 파파룰라
19:40 춤추는 곰 콩야
20:00 왕초보 중학영어
20:40 중학 개념 끝장내기 〈역사〉
21:20 중급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1~2)
22:40 중3 예비과정 〈역사(하)〉
23:20 EBS 드라마 스페셜 〈겨울아이〉

김래원 "연기 갈증 영화로 해소했어요"

군 전역 후 '마이 리틀 히어로' 배우 복귀

"'천일의 약속'으로 많이 사랑받았지만, 연기에 대한 목마름이 풀리지 않았어요. 이번 영화 '마이 리틀 히어로'는 그 갈증을 해소해줄 작품이었죠."

김래원(사진)은 지난 2011년 8월 군에서 나오자마자 김수현 작가의 TV드라마 '천일의 약속'으로 복귀해 배우로서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렀다. 하지만 드라마가 김수현 작가의 명작으로 사랑받을수록 주연 배우인 그의 마음속에 아쉬움은 커졌다고 했다.

그런 목마름을 갖고 있을 때 영화 '마이 리틀 히어로'의 시나리오가 그의 손에 들어왔다.

"감독님이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자고, 같이 만들어보자고 절 설득하신 거죠. 신인감독이었지만 두어 번 만나고 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영화가 마무리돼 드디어 관객과 만나게 된다. 군 제대 후 첫 영화여서 그의 설렘은 더 커보였다.

이 영화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주인공으로 뮤지컬 오디션에서 한 계단씩 올라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김래원이 맡은 '유일한'은 성공을 꿈꾸는 뮤지컬 음악감독이자 아이의 꿈이 실현되도록 돕는 코치다.

"시나리오엔 캐릭터의 분명한 색깔이 없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한 방 뒤집으려고 하는, 성공하려는 야망에 가득 찬 청년이었죠. 그런데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극대화하면서도 주인공이니까 너무 밉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연기를 고민했어요. 얄미워 보이면서도 순수해 보일 수 있는 표현을 가미했죠. 아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후반부에 너무 작정하고 다 포기해버리면 관객이 공감을 못 할 것 같아서 무겁게 가기보다는 조금 더 충동적으로 보여주려고 했죠.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어떻게 할까?' 같은 대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거예요. 리허설도 없이 모든 상황을 갑자기 벌어진 느낌으로 했죠. 멋을 부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역 배우 지대한과의 호흡도 이번 영화의 또 다른 묘미였다. 아역 배우 지대한은 실제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다.

음악감독 역을 맡아 피아노와 지휘 연습도 해야 했다.

"피아노는 한 달 정도 연습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 피아노가 와 있더라고요. 자기 전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휘가 더 어렵더라고요.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촬영 전날 감독님이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억울함을 표현했죠. 결국 영화에는 안 나오게 돼서 아쉬워요."

함께 출연한 배우 이성민과 이광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이성민 선배님은 드라마 '골든타임' 찍으면서 밤샘 촬영하고 현장에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들 선배님 연기 최고라고 했죠.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3일(음 11월 22일 己巳)

子 36년생 빈틈을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48년생 관련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60년생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이해가 되리라. 72년생 유동적인 변수가 크다. 84년생 막연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03, 14

丑 37년생 후회하게 된다. 49년생 배려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61년생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니 기다려 보자. 73년생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85년생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행운의 숫자 : 26, 07

寅 38년생 홀가분한 마음으로 임했을 때 더 나은 실적이 있다. 50년생 제3자의 말에 따라 좌우될 필요는 없다. 62년생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조하는 것이 좋다. 74년생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7, 69

卯 39년생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다양하다. 51년생 의도한 바가 기다렸다는 듯이 펼쳐진다. 63년생 궁금증이 명쾌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75년생 가닥이 잡히면서 쉽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89, 45

辰 40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훨씬 낫다. 52년생 변동하지 않고 같은 상태에 있을 것이다. 64년생 흥기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76년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밀한 안내가 절실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5, 86

巳 41년생 예외로 치부해 왔던 바가 중심에 서게 되리라. 53년생 깨끗한 명예로움이 속된 부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65년생 발상에 있어서 유연하다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77년생 조용히 추진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91, 59

午 42년생 과욕은 망신살을 부른다. 54년생 상념을 깔끔히 지워버려야 추진력이 생긴다. 66년생 비운다면 머지않아 채워질 것이다. 78년생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약속이나 예의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32, 93

未 43년생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해야겠다. 55년생 커다란 관점으로 임해야 더욱 값진 수확을 얻으리라. 67년생 약간만 진로를 수정하면 순풍을 만날 것이다. 79년생 중심에 서있어야만 만사가 무탈하리라. 행운의 숫자 : 88, 76

申 44년생 가변적이니 추이를 지켜봐야겠다. 56년생 정도를 걸어야 떳떳한 법이다. 68년생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 많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겠다. 80년생 환경과 조건은 불완전하지만 진행함에는 무리가 없다. 행운의 숫자 : 44, 18

酉 45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극복되리라. 57년생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된다. 69년생 사실인 듯이 꾸며져 있는 것에 속아서는 아니 된다. 81년생 구름이 빠르게 밀려가면서 맑게 개이리라. 행운의 숫자 : 11, 52

戌 46년생 유유자적하며 순조롭다. 58년생 새로운 발상이 싹틀 것이다. 70년생 특별한 정보를 접하지만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82년생 갈망하겠지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하리라. 행운의 숫자 : 83, 25

亥 47년생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일관되게 밀어붙여야겠다. 59년생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 71년생 급할 때일수록 가닥을 잘 추스르는 것이 중요하다. 83년생 선택해야 할 기로가 몇 번 나타나리라. 행운의 숫자 : 36, 5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굿모닝 잉글리쉬

A storm is brewing

태풍이 휘몰아칠거야

A : Our country's situation is pretty bad.
B : Yeah, with all the corruption, and the bad economy.
A : I wonder how long people will continue supporting our government.
B : I don't know, but I think a storm is brewing.

A : 우리나라 상황이 꽤나 심각해.
B : 그래. 온통 부정투성이에다, 경제가 엉망이잖아.
A : 국민이 얼마나 현 정부를 계속 지지할까 궁금하구만.
B :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태풍이 휘몰아칠거야.

* 골치아픈 문제가 곧 터지려고 해.
= Trouble is brewing.
*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가려고 해.
= All hell is going to break loose.

〈칼란스쿨·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한자이야기

沐猴而冠(목후이관)

머리 감을 목, 원숭이 후, 말 이을 이, 갓 관

목후이관(沐猴而冠)은 '원숭이가 관을 썼다'는 뜻으로, 의관은 그럴 듯하지만, 생각과 행동이 사람답지 못하다는 말이다. 천혜의 요지 함양을 두고 항우가 초나라로 천도를 고집하자, 간의대부(諫議大夫) 한생(韓生)이 이를 말렸다. 하지만 항우는 화를 내며 한생의 말을 막자, 한생이 크게 탄식하고 '원숭이를 목욕시켜 관을 씌운 꼴이군'이라며 중얼거렸다. 항우가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진평에게 그 뜻을 묻자, 진평이 답하였다. "폐하를 비방하는 말이온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관을 써도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과 원숭이는 꾸준하지 못해 관을 쓰면 조바심을 낸다는 것, 그리고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므로 만지작거리다가 의관을 찢고 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격분한 항우는 한생을 붙잡아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 죽였다. 한생이 죽으면서 말했다. "두고 보아라. 백일 이내에 한왕(漢王)이 그대를 멸하리라. 역시 초나라 사람들은 원숭이와 같아 관을 씌워도 소용이 없구나" 결국, 천도를 감행한 항우는 함양을 유방에게 빼앗기고 사면초가 속에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출전] 『사기(史記)』〈항우본기(項羽本紀)〉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

니하오 쫑구워

同志 tóngzhì

同志가 변했다

지금은 없어진 용어지만 과거에 중국에서 '同志'라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 시내외곽 유원지에서 만난 나이 든 어르신이 '동지'라고 저를 부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계급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선의에서 출발한 용어지만, 지금 사용하기엔 아주 촌스럽고 예스러운 호칭이지요. 그런데 '同志'가 새로운 용어로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중국인들과 무슨 말을 하다가 '他們倆是同志 - 재 둘이 동지야'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세상에나 그 말이 동성애의 의미로 쓰인 답니다.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오하요우 니혼고

焦(あせ)ると失敗(しっぱい)しやすいです。

조급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A : 今日(きょう)はエンジンを組(く)み立(た)てる実習(じっしゅう)です。
B : はい、分(わ)かりました。
A : 焦(あせ)ると失敗(しっぱい)しやすいですから、ゆっくりどうぞ。
B : これでどうですか。うまく出来(でき)ましたか。

A : 오늘은 엔진을 조립하는 실습입니다.
B : 예, 알겠습니다.
A : 조급하면 실패하기 쉬우니까 천천히 하세요.
B : 이걸로 어때요. 잘됐습니까.

エンジンを組(く)み立(く)てる 엔진을 조립하다
失敗(しっぱい)しやすい 실패하기 쉽다
旨(うま)くできる 잘되었습니다

〈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
http://www.kjasuka.co.kr ☎ 232-1503